

# 2001년, 이들을 주목한다

출판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출판인 · 편집인 · 작가



이일규 대표

“솔직히 말해 부담스럽다. 기존의 출판 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던 저자와 역자들을 출판계로 끌어 들였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앞으로 더 좋은 책을 만들어 기대에 보답하겠다.”

‘이후’ 이일규 대표(31)의 소감이다.

이후는 젊은 사회과학도들이 모여 만든 ‘비판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다. 1998년 2월 출판등록을 했을 당시, 이일규 대표를 포함한 세명의 직원 모두가 20대 후반이었다. 이들 ‘신출내기’들의 출판 경력은 대학에서 교지 편집과 확보사 기자로 뛰었던 경험이 전부였다.

“출판을 통해 비판사회과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싶었다. 80년대 학생운동이 이룩한 값진 성과들이 90년대 들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생각이 들었다. 출판을 통해 80년대 비판사회과학의 가치와 의의를 승계하고 새로운 비판사회과학의 지평을 열고 싶었다.”

이후가 첫 책으로 펴낸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편집부 엮음)은 90년대 학생운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책이다. 하지만 이후는 이 책으로 ‘쓴 맛’을 봐야했다. 교지 만들던 경험과 패기만으로 출판계의 높은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

새해를 맞이해 《출판저널》은 일간지 출판담당 기자들의 추천을 받아 올해의 주목할 만한 출판인과 편집인, 그리고 저자 및 작가를 선정했다.

출판인은 ‘이후’의 이일규 대표가, 편집인은 ‘마음산책’의 정은숙 주간이, 저자는 소설가 겸 신화연구가 이윤기씨가 각각 뽑혔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 출판계에 활력을 불

어 넣어줄 이들을 만나 소감과 포부를 들어본다.

이번 조사에 응한 출판담당기자는 9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두현(한국경제신문), 김관명(한국일보), 김중식(경향신문), 남도영(국민일보), 배문성(문화일보), 송인배(조선일보), 이광표(동아일보), 조우석(중앙일보), 허 연(매일경제신문) (이상 가나다 순).

## “젊음과 패기로 출판의 새 지평 열겠다”

이후의 이일규 대표

던 것이다. 처음 1년간은 대형서점에서 책을 받아주지 않아 대학 주변의 사회과학서점을 중심으로 영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생각했던 것만큼 출판이 만만하지 않았다.

“기존의 사회과학 출판사들이 마케팅을 너무 소홀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과정에서 비판사회과학이 전문적인 출판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다.”

이후가 출간한 책 가운데, 이후의 이념적 지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신좌파의 상상력》(조지 카치아피카스, 이재원 외)이다. 이 책은 비판사회과학 출판사인 이후의 이미지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이 책을 기점으로 이후는 신좌파 이론을 전파하는 일련의 저서들을 본격적으로 출간하기 시작했다. 《신좌파의 상상력》의 후속편으로 지난해 10월 출간한 《정치적 전복》(조지 카치아피카스, 윤수종), 《그림시의 여백》(르네이트 홀럽, 정철수) 등이 그것이다.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함몰된 구좌파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좌파적 시각을 담은 이 책들이 우리 사회과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후는 올해 인문과 예술, 비판사회과학이 만나는 지점에 놓인 책을 중점적으로 출간할 계획

이다. 이후 본래의 색깔을 지키면서 책의 스펙트럼을 넓혀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곧 출간될 에르네스트 만델의 《즐거운 살인》이 그 신호탄인데, 이 책은 범죄소설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분석한 작품이다.

이후가 ‘벤치마킹’ 하는 출판사는 미국과 영국의 젊은 독립출판사다. 7~8인 정도의 인원이면 내고 싶은 책만 만들면서 무리 없이 출판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이대표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철학을 반영하듯 이후의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걸려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을 팔 때 단지 12온스 정도의 종이, 잉크, 그리고 풀만을 파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에게 완전한 하나의 새로운 삶을 파는 것이다.”

올해도 이후의 젊은 패기와 도전정신을 서점가에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최갑수 기자



정은숙 주간

## “기획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마음산책 정은숙 주간

집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86년 고려원으로 자리를 옮긴 정주간은 출판에 대한 대중적이고 실제적인 감각을 배우게 된다. 광고 카피를 쓰고, 본격 소설뿐만 아니라 대중소설까지 기획한다.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최승호씨를 만난 것도 이때다. 정주간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포장술’은 이 시절 터득한 것이다. 그리고 89년, 그는 삼성출판사로 자리를 옮겨 전집류 제작 경험을 쌓고, 92년 계간 《작가세계》를 내는 세계사로 옮겨 본격문학 출판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하지만 그의 진가가 본격적으로 발휘된 때는 1996년 이후의 열림원 시절이다. 그가 기획한 《산문의 숲》 시리즈는 우리 산문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산문이 시나 소설에 비해 문학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이 시리즈는 대중성과 문학성을 절묘하게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자들에게는 산문 읽기 붐을, 출판계에는 산문 출간 러시를 불러일으켰다.

“산문은 시나 소설에 비해 기획자의 능력이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좋은 산문집은 철저한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다. 편집자의 가장 큰 역할은 책의 주제와 그 주제를 가장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좋은 산문집은 편집자의 손끝에서 나온다.”

정주간은 원고를 받으면 철저히 독자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스스로 별다섯개의 평점을 매길 수 있을 때까지 수정하고 보완한다. 그리고 정주간이 직원들에게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팀워크다. 책의 컨셉에서 표지디자인까지 모든 부분을 의논해서 결정한다.

‘마음산책’의 ‘창업멤버’인 정주간은 그동안 모두 여섯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이들 책 역시 정주간만의 독특한 기획력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한다. 기회가 닿으면 소설과 시집을 비롯한 문학출판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 최갑수 기자

출판계에서 ‘명 기획자’로 통하는 정은숙 주간(39)은 출판기획을 “밑바닥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타고난 기획자는 없다. 기획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의 이런 출판관은 16년 전, 그가 출판계에 첫 발을 디딘 홍성사 시절에 가다듬어진 것이다.

“대학 동아리에 가입하듯’ 입사했던 홍성사에서 출판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그때부터 편집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는 편

## “내 모든 작업의 궁극은 소설”

소설가 겸 신화연구가 이윤기씨

소설가 이윤기씨(55)는 ‘속필다작’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무려 11권의 책을 펴냈다. 하루에 40매 이상씩 쓰는 강행군이 연일 계속됐다. 그동안 좋아하는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다. 즐거운 만큼 괴로운 한해였다.

그동안 그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신화 연구가 지난해부터 빛을 발했다. 그가 펴낸 신화 번역서와 해설서를 기폭제 삼아 신화 읽기 붐이 일어났다.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도 급격히 세계화됐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신화가 그 코드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소설집 《두물머리》와 장편소설 《그리운 흔적》을 펴냈던 그는 《두물머리》로 대산문학

상을 받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도 그는 두권의 소설을 펴낼 계획이다.

“바리데기 설화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을 구상중이다. 20년 전 한 출판사와 계약했는데, 당시에는 도저히 쓸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창작집도 한편 펴낼 생각이다.”

그는 소설을 쓰기 위해 신화를 연구했고, 번역을 해왔다고 말한다. 번역을 하며 자연스럽게 소설 습작을 할 수 있었고, 신화를 연구하며 소설 창작에 필요한 풍부한 상징과 플롯을 공부할 수 있었다. 그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정확하고 탄탄한 문장과 풍성한 서사, 그리고 박학다식은 오랜 번역과 신화 연구에서 기인한다.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줘서 고맙다. 지난해에는 기쁜 일이 많았다. 작업실로 쓸 오피스텔도



이윤기씨

하나 얻었다. 더 기쁜 일은 인문학의 황량한 벌판에도 하나둘 사람이 모여든다는 것이다. 계속 지켜봐 달라.” — 최갑수 기자